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3월 3일
제1990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요한 2,19)



〈성전 정화〉, 체코 델 카라바조

사순 제3주일 (나해)

제 1 독서 탈출 20,1-17 <또는 탈출 20,1-3.7-8.12-17> |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다(요한 1,17).

화답송 시편 19(18) |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 2 독서 1코린 1,22-25 |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복음 요한 2,13-25 |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 ¹³ 유대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 ¹⁴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 ¹⁵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엮어 버리셨다.
- ¹⁶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 ¹⁷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 ¹⁸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 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 ¹⁹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 ²⁰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 ²¹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 ²² 예수님께서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 ²³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 ²⁴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 ²⁵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 속에 들어 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복음 묵상

‘성전’은 하느님의 집이고 그분을 만나는 곳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뜻이며, 서로 긴밀히 나누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고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집’은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조용하며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집’인 ‘성전’은 누구의 방해도 없이 조용하고 안전하게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방해하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을 보십니다. 이것들은 ‘제사’를 드리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었고, 제사는 하느님과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절대적인 자리였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단호히 이르십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사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는 각종 동물과 장사꾼들로 지저분해지고 혼잡해진 외적 환경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였던 것은 구원을 사고파는 ‘내적 타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것처럼, 파스카를 준비하는 우리 자신의 성전(마음)에도 오십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보신다면 과연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우리 안에 자리잡고 있는 타락과 위선과 죄를 보시겠지만 그다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구원을 사고파는 우리 자신, 구원으로 장사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명한다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부활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

복음과 성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마르 2,16)

체코 델 카라바조(Cecco del Caravaggio, 1589-1630)가 1610년경에 그린 〈성전 정화〉는 마르코복음 11,15-19을 비롯하여 마태오복음 21,12-17 ; 루카복음 19, 45-48 ; 요한복음 2,13-22이 그 배경이다.



〈성전 정화〉, 체코 델 카라바조

유대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 그림의 배경에는 성전 기둥들이 여러 개 세워져 있어, 이 사건이 성전 입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서 소를 파는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쫓아내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색인 붉은색 속옷과 하늘의 색인 푸른색 겹옷을 걸치고 있어, 제자들이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요한 2,17)라는 성경말씀을 떠올리게 한 것을 연상시킨다.

예수님과 상인들 사이에는 파스카의 희생 제물로 사용될 소들이 모여 있다. 성전 뜰이 탐욕의 가축 시장이 되고 만 것이다. 대사제는 상인들에게 성전에서 가축을 팔 권한을 주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가축 상인들은 파스카 대목을 보려고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했기 때문이다.

상인들과 환전상들은 예수님의 채찍질에 놀라며 채찍을 피해 한 무더기로 우르르 넘어지고 있다. 그들은 강도들의 소굴을 정화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다. 성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겼던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밥줄이 끊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질에 상인들이 모두 아우성인 것이다.

환전상들의 판자가 놓인 받침대는 이교도들의 제단이다. 이교도들의 제단 위에 환전상들의 동전이 놓여 있으니 돈이야말로 최고의 이상승배가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의 발밑에는 상의가 반쯤 벗겨진 한 남자가 이 와중에도 땅에 엎드려 흠어진 동전을 그릇에 주워 모으려고 한다.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애착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손용환 신부, 성경 미술관>

사순절의 기도

- 이해인 수녀 -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당신을 위해서 매일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주여,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 위에 곧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는 당신의 굳셈보다는 약함이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항거치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에 찬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바오로 딸 콘텐츠

1 2024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 약정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실천하고 있는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를 약정 받습니다.

본당 할당액	본당 세대수 / 약정 세대수(비율)	현재 약정액
\$195,000	2,405 / 186 세대(8%)	\$89,760

-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에 함께해 주시길 청합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2 The Light is On for You

- 사순 시기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8시까지 성체 현시와 고백성사가 있습니다.
- 교구 내 모든 본당에서 실시됩니다.
- <https://thelightison.org/>

3 구역 봉사자 회의

- 일시 : 3월 3일(일) 오전 11:30 (A-3,4)

4 3월 5일(화) 선거일 - 친교실 사용 금지

- 3월 5일(화)은 미국 대통령 예비 선거일로 친교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레지오 모임, 성령 기도회 등 모임은 하상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첫 목요 기도회

- 일시 : 3월 7일(목) 오후 7:30
- 장소 : 대성당 · 강사 : 주임 신부님
- 제목 : "예수님이 답이다."
- 찬미와 묵주기도, 성체 현시와 미사가 봉헌됩니다. 사순특강은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 문의 : 박인옥 수산나 (703) 909-2980

6 병자 영성체

- 일시 : 3월 8일(금)
- 신청 : 정문기 윌리엄 (703) 598-3316

7 유아세례

- 일시 : 3월 9일(토) 오후 2시 (사무실로 신청)

8 소공동체 모임의 날

- 일시 : 3월 9일(토)
-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은 공동체 기도회의 날입니다.
- 해당 공동체에 참석하여 신앙과 사랑을 나눕니다.

9 단체장 회의

- 일시 : 3월 10일(일) 오전 11:30 (A-1,2)

10 꼬미시움 월례 회의

- 일시 : 3월 10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11 3월 10일(일) - Day Light Saving Time

- 다음 주일(3월 10일)부터 Daylight Saving Time이 시작됩니다. 오전 2시가 3시로 한시간 앞당겨 집니다.

12 하상 성인학교 2024년 봄학기 안내

- 일정 : 3월 12일(화) - 6월 7일(금)
- 등록 : 3월 10일(일)까지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등록금 : \$60(점심 없음)
- 과목 : 생활영어, 수지요법, 키보드, 라인댄스, 기타, 색소폰, 서양화, 수목화, 민화 / 전시 및 발표회(일정 미정)
- 세부 사항이 있는 안내서 및 신청서는 주보대에 있습니다.
- 문의 : 김 윌리어나 (703) 217-2775

13 부활 제대 장식 꽃 봉헌

- 부활 제대 장식을 위해 제대회에서 꽃 봉헌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 어머니학교가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4H Education Center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머니학교를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해 주세요.

Fr. Paul 개인 피정

- 폴 신부님께서 3월 3일(일)부터 8일(금)까지 개인 피정차 본당에서 지내며 함께 미사와 기도를 하십니다.
- 폴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40 주님 수난 일간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수난 40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 ◆ 평일 새벽 5시 30분에 십자가의 길과 미사가 봉헌되며, 주일에는 9시 25분에 있습니다.
- ◆ 십자가 복사와 초 복사를 해 주실 분들은 입구 게시판에 원하는 요일에 이름을 적어 주세요.
- ◆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은 후문을 이용해 주시고, 주차는 하상관 주차장 앞쪽 라인과 성당 앞쪽 라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성당 쪽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차량 방향을 성당 쪽으로 해 주시어 차 불빛이 주객가를 향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서행을 부탁드립니다.
- ◆ 토요일에는 지역주민을 위해 꼭 후문을 이용

감사드립니다.

- 혼인 갱신식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본당 ME에 감사드립니다.
- 주일학교 기금 마련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음식 판매를 위해 수고하신 PTO(자모회),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중미사 예불봉헌

03/03 이번 주 우드브릿지 구역

03/10 다음 주 센터빌 1구역

성당 청소

03/03 이번 주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03/03 다음 주 비엔나 1, 2구역

성당을 아름답게 꾸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2월 25일(사순 제2주일)

봉헌금	\$ 7,903.00
교무금	\$ 12,740.00
교무금(신용카드)	\$ 2,330.00
감사 현금	\$ 70.00
온라인 봉헌	\$ 2,470.00
합계	\$ 25,513.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성 정바로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2024년 3월 7일(목) 오후 5:00 - 6:00
2024년 3월 8일(금) 저녁 8:00 - 9:00
2024년 3월 10일(일) 오전 6:00 - 7:00

- 주일 강론
- 성서 못자리 : 김덕재 신부 4복음서 강의
[제 14강] '요한복음 표징의 책에 대해서'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0 AM 10:00 AM(교중미사) 2:00 PM(학생미사)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6:00 AM	7:30 PM	11:00 AM	